

#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나타난 리더십 모멘트 연구

박 현 모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1388년)은 상반된 평가를 받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동아시아 힘의 공백기에 잃어버린 고구려의 고토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한다. 반대로 위화도회군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고려군이 압록강을 건너 요동지역으로 진군했다라면 강대국 명나라와의 대규모 전쟁은 불가피했으며, 만일 패전했을 경우 한반도에 '제2의 한사군 설치'와 같은 치욕적인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말한다. 위화도에서 회군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의 왕조가 패망하고 말았을지, 아니면 동아시아의 강성대국, 즉 '제2의 고구려'가 성립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그보다는 지도자의 결단과 실천이다. 이성계의 언행과 상황전개를 '리더십 모멘트'(leadership moment)라는 관점에서, 즉 위화도회군을 감행할 때의 '전환의 리더십'과, 회군 이후의 '돌파의 리더십'의 시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성계와 그리고 그 뒤의 세종이 『태조실록』 『용비어천가』 등이 위화도회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의 역사적 의미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이성계, 위화도회군, 리더십모멘트, 전환의 리더십, 돌파의 리더십, 기록의 정치

## I. 1388년 5월, 이성계의 선택

이 글의 목적은 620여 년 전에 일어난 '위화도회군,' 즉 1388년(우왕 14) 5월에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머무르던 고려군의 이성계 등이 군사를 돌이킨[回軍] 사건을 통해, 역사 전환기에 나타나는 리더십 모멘트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전환 리더십의 조건을 고찰하는 데 있다.

종래 위화도회군은 우왕과 최영(崔瑩 1316-1388)의 무모한 대외정벌이 이성계에 의해 중단된 사건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도 최영이 무모하게 요동 정벌을 단행하려 하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고 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76). 그런데 최영 등이 왜 대외정벌을 구상하고 추진했는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국제정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성계가 압록강의 한 가운데서 군사를 돌이킨 이유에 대해서도 이른바 ‘4 불가론’ 외에 그것의 정치적 의미와 리더십 측면의 분석이 안 되어 있다.

1959년 강상운의 논문이 나온 이래로 위화도회군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고려 말 정치세력관계와 지리적 고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친명파인 이성계, 정몽주 등과 친원파인 최영, 안소 등의 권력투쟁과 정치노선의 대립 구조가 그것이다(김영수 1999). 특히 위화도회군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성계 친위세력의 혈연관계를 분석하면서, “회군의 단행은 저들의 주도면밀한 정치적 음모를 반영한 것이며, 정치권력에 급급한 현실적 조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박천식 1979, 91). 반면 최영과 이성계라는 두 세력의 대립 구조 속에서,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 등 친명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 요동정벌이고, 그것을 이성계 등이 마지막 순간에 뒤집은 것이 위화도회군이라는 해석도 있다(김당택 2005). 어느 경우든 위화도회군을 한반도의 대외정책의 두 방향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회군 이후의 이성계의 언행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은 없다.

역사 전환기 리더십의 사례로 필자가 위화도회군을 선택한 것은 비단 이러한 학문적 공백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회군’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의 우연성과, 그 우연성 속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 ‘회군’ 이후 이성계 등 조선건국 세력이 반대세력을 제압하거나 설득하면서 정치주도권을 발휘해 가는 과정은 지도자의 상황인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한 1388년부터 1392년까지 약 4년 간 고려의 핵심 인물들을 차례차례 제거하는 한편 백성과 병사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해 7월에 조선을 건국한다(1392. 7). 그런데 이 4년 2개월은 마치 한국 현대사의 ‘해방 공간기’(1945~1948)와도 같아서 무수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점철된 기간이었다. 그야말로 ‘과거의 질서와 가치는 이미 무너졌고, 아직 새로운 질서와 가치는 형성되지 않은’ 역사적인 계기(Machiavellian moment)였다(J.G.A. Pocock 2011).

사료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이성계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고려의 국왕을 유지시키고 최영 등 정적들만을 제거하여 국정을 좌우지하는 길이다. 이 길은 ‘제2의 무신정권’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 둘째는 새로운 국왕을 내세우면서 혁신파들과 함께 정치 사회 외교적 개혁을 추진하는 길이다. 이 길은 공민왕의 개혁을 계승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셋째는 고려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이다. 이성계는 두

번째 길을 가는 듯하더니,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의 길을 택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성계에게는 그 어느 길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결정하고 행동해야 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역사의 계기들을 지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 계기들의 성격은 완전히 생소한 데 반해 그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의 기로(岐路)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성계 등이 조우(遭遇)했던 역사의 기로들은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도 정치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리더 스스로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 모멘트’(leadership moment)<sup>1)</sup>였다. 이 역사의 계기에서 지도자는 ‘완전한 자유재량’과 ‘철저한 복속과 추종’ 사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평가받는 운명을 떠안게 된다. 이 점에서 리더십 모멘트는 ‘거대한 암흑 책’(A great dark book)과도 같다. 이것은 이질적인 동기를 가진 각종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역동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이 우연적인(contingent) 계기들에서 크게 두 번의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위화도회군을 감행할 때는 ‘전환의 리더십’을, 그리고 회군 이후 부닥치는 여러 반대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돌파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들의 적절한 리더십 발휘의 결과로, 그들은 조선 건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 II. 위화도회군의 국제정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것과 별개로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이성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중원대륙의 구세력, 즉 원나라가 쇠퇴하고 신흥세력인 명나라가 부상하기 전의 공백기로 잃어버린 고구려의 고토, 즉 만주지역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한다. 한반도를 넘어서 북방으로까지 국세(國勢)를

1) ‘리더십 모멘트’란 미국의 마이클 어셈(Michael Ussem) 교수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인데, 어셈은 “결정적인 순간 이후에 이어지는 극적인 사건들의 경과 속에서 그들(리더)들이 팀원과 회사, 또는 조국의 앞길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Michael Ussem 2006; 2011). 이와 비슷한 책 제목으로 포카 교수의 ‘마키아벨리언 모멘트’도 있다. 이 책에서 포카(J.G.A. Pocock 2011)은 ‘마키아벨리언 모멘트’를 혁명적 변동의 상황에서 역사가 “잠시 동안 자신의 불안정함과 대면하는 순간”을 맞게 되는데, 이 때 사람들은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지 않은 과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필자는 이성계 등이 경험했던 ‘마키아벨리언 모멘트’를 보다 넓게 통용될 수 있는 ‘리더십 모멘트’로 부르고자 한다.

떨쳐나가려는 최영 장군의 꿈이 사대주의자 이성계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위화도회군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고려군이 압록강을 건너 요동지역으로 진군했다라면 강대국 명나라와의 대규모 전쟁은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만일 패전했을 경우 한반도에 ‘제2의 한사군 설치’와 같은 치욕적인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의견이 다 나름대로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회군으로 인해 ‘요동공벌’을 주장한 최영이 정권에서 밀려났고 이성계가 대신 집권했으며, 그에 따라 우리 역사의 물줄기도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최영은 왜 그 시기에 요동을 공벌하려 했을까?

거시적으로 볼 때 위화도회군은 한반도에 등장했던 상반되는 두 가지 외교노선, 즉 ‘강성대국노선’과 ‘강대국 동맹노선’<sup>2)</sup> 대립 속에서, 후자 즉, 주변의 패권국(강대국)과 동맹(alliance)을 맺어 비록 강한 외세에게 자주와 독립을 희생하는 대신 국가 안보와 대내 안정을 확보하려는 외교 노선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영의 요동정벌이 강성대국 노선, 즉 자체의 군사력을 키워 중원 지역의 패권국과 거의 대등한 국격(國格)을 유지하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하려는 외교노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명분인 사대(事大), 즉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국가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큰 나라 섬기기를 근심히” 하였다는 말은(『태조실록』 총서) 강대국동맹노선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위화도회군은 결코 ‘시이저의 루비콘강 도강(渡江)’과 같이 정치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국내정치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미국의 제임스 팔레 교수가 통찰한 한국사 속의 두 가지 외교노선, 즉 강성

2) 한반도에 나타난 두 가지 외교노선, 즉 ‘강성대국노선’과 ‘강대국동맹노선’은 제임스 팔레(James B. Palais 2003) 교수 글에서 힌트를 얻어 필자가 이름 지었음을 밝힌다.

3) 박원호(2005, 85) 교수에 따르면, 요동(遼東)이라는 지역 개념이 여러 가지 범위로 쓰이고 있으나, ‘요동공벌’의 경우 요동은 요동도사(遼東都司)를 가리키는데, 요동도사가 위치한 요양(遼陽: 중국 랴오닝 성 선양(瀋陽)의 서남쪽 위치)은 요동 지방의 인후(咽喉)로서, 주변 국가들에게 중요한 군사전략적 거점이었다. 최영이 공벌을 추진한 것은 바로 거점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에 대한 반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최승희(2003, 16) 교수는, 그 당시 운남 정벌이 끝나고 원나라의 잔여세력인 나하추마저 항복하는 등 명나라의 국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려 조정의 요동 공벌 결정은 “당시 실력자였던 최영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진 대외정책일 뿐이었다고 본다.

대국노선과 강대국 동맹노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생존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길은, 외부의 군사적 도전에 대해 호전적이고 독립적인 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와 독립을 희생하더라도 보다 강한 외세(外勢)의 묵인(默認)을 얻기 위하여 적응하고 타협하는 노선을 걸을 것인가의 딜레마에 놓여져 있었다. 현재와 가장 유사한 상황은 7세기 중반 신라가 중국의 강력한 당 제국과 교묘하게 연합함으로써, 경쟁국이었던 고구려와 백제를 패배시켰을 때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경쟁국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라는 한반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당 제국과 연합하는 중대한 모험을 감행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구려는 강하고 호전적인 국가로서, 독재적인 수장 연개소문의 강력한 통치 하에 반세기 동안 수(隋)와 당(唐)에 의한 일련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과 신라의 강력한 동맹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 신라는 이득을 보았지만, 즉시 당(唐)에 의한 한반도 점령 시도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라는 당에 의존하다가 거의 패망 지경에 이르렀지만, 운이 좋게도 패배한 적들(백제, 고구려)의 잔당들로부터 충분한 세력을 모아 당군을 한반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James B. Palais 2003, 2).

여기서 보듯이, 팔레는 ‘외부의 군사적 도전에 대한 호전적이고 독립적인 노선’(by a pugnacious and independent policy toward military challenges)으로 연개소문 치하의 고구려를 들었다. 반세기 동안 수(隋)와 당(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제국(帝國)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장점, 즉 자국의 외교노선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는 반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여해야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팔레 교수는 이 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이 고구려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지속시켜간 외교정책은 그 점에서 정반대의 장단점을 갖는다. 강대국의 안보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사력 유지를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지만 ‘자주와 독립을 희생하더라도 보다 강한 외세의 묵인을 얻기 위하여 적응하고 타협’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후 당면해야 했던 ‘외세 개입’이 그것이다(팔레는 남한의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신라의 강대국동맹노선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팔레에 따르면, 이러한 대외정책의 두 방향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그 선택의 대상으로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다. (1) 10세기 거란족이 요(遼)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의 송나라와의 국교를 끊으라면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의 서북부에 침공했을 때 고려 조정

은 전쟁과 논쟁 끝에 11세기 초에 거란과의 동맹노선을 택했다(친송 노선 ↔ 친요 노선). 그렇게 해서 유지된 평화체제는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2세기 초에 증원대륙의 정세가 바뀌면서 깨졌다. 한족의 송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가 쇠퇴하면서 자연 힘의 공백이 생겼고 그 사이에 만주의 여진족이 부상한 것이다. (2) 여진의 새 지도자인 아구다는 1119년에 고려와 금(金)나라(1115년 건국)의 정식관계를 형제(兄弟)의 관계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고려 조정에서는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관리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거란족보다 더욱 야만적이고 미개한 여진족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지만, 고려의 왕 예종은 결국 여진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였다(친요 노선 ↔ 친금 노선). 팔레 교수에 따르면, 이처럼 “고려 역사상 두 번(1018년과 1126년)의 묵종(默從)으로 2세기 간의 평화가 달성되었는데, 만약 대항했다면 곧 고려왕조의 정복은 물론이고 아마도 한국문화의 소멸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3) 그 다음으로 한반도 대외정책의 대립은 14세기 중반에 나타났다. 한족의 주원장이 몽고족의 원나라 황실을 북중국으로 쫓아버리고 1386년 명나라를 세웠을 때, 고려 조정은 원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중시하는 친원파(親元派)와 새로 부상하는 명나라와의 국교수립을 강조하는 친명파(親明派)로 나뉘었다. 친원파인 이인임 등이 원나라로부터의 자주노선을 지향했던 공민왕을 시해한 이후, 고려 조정은 다시 원나라와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이처럼 명나라와 고려 조정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자국의 사신이 중간에 살해당하자 명나라는 새로 즉위한 우왕을 꾸짖으며 철령지역에 관청을 설치하는 등 무력행동에 나섰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을 추진했고, 이성계는 그 중간에 회군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본다(친원 노선 ↔ 친명 노선).

(4)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명나라와의 동맹노선을 천명했고, 그의 자손인 태종과 세종이 지속적으로 국교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돈독해졌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파병한 것은 그러한 동맹노선의 성과였고, 조선은 명나라의 안보우산 아래서 20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나라가 쇠퇴하고 만주의 여진족이 부상하면서 조선의 외교노선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여진족이 후금을 거쳐 청나라를 수립하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광해군 때의 ‘유연한 중립노선’은 그가 인조반정으로 물러나고 광해군 정권의 모든 정책노선을 뒤집는 입장을 취한 인조와 서인 정권에 의해 백지화되었고, 인조 정권은 남한산성에 포위된 상태에서도 ‘오랑캐’인 적들과 화친을 맺을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

을 벌였다(친명 노선 ↔ 친청 노선).

(5) 인조와 조선 지식인들의 기대와 달리 청나라는 강희제-옹정제-건륭제를 거치며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자리를 굳혀갔다. 조선에서 북벌(北伐)론이 들어가고 오랑캐라 하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며 북학(北學)론이 대두하고 지배적인 추세로 변한 것은 그런 중원대륙의 변화 때문이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지속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평화질서는 19세기 중반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을 받으며 무너졌다. 청나라는 1839-1842년에 아편전쟁을 치렀으며, 일본 역시 미국의 페리에 의해 1853년 해안을 폭격당한 후 1858년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에서는 대원군 집권 때까지 쇄국정책을 고집하다가 고종의 친정으로 대외 개방정책을 취했는데, 개방할 대상을 놓고 조정의 관료와 지식인들은 대립했다. 신흥 패권국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과, 일본 내지 러시아 등을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수하는 입장 등이 있었다(친미 노선 ↔ 친일 노선 ↔ 친러 노선 ↔ 친청 노선).

(6)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신흥 제국주의 국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조선의 이권을 놓고 다투는 동안, 조선 나름대로 개혁(갑오경장)과 체제 전환(대한제국)을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집요하고도 치밀한 병탄정책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국가로 전락했고, 역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상실한 국권을 되찾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그러한 노력과 1945년에 연합국의 승리로 마침내 해방을 맞았으나, 이번에는 해방된 나라의 이념과 성격을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세력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로 만들자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했고, 급기야 내전까지 치러야 했다(친소 노선 ↔ 친미 노선).

이상에서, 팔레 교수의 ‘한반도 외교의 두 경향’이라는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을 토대로 우리 역사 속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립 노선들을 다소 길게 살펴보았다. 이는 그러한 유형화가 실제 역사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 외교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새롭게 부상한 중국의 존재로 인해 다시 기로에 섰다. 과연 종래 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G2’의 하나로까지 부상한 중국과 새롭게 동맹을 형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것이다(친미 노선 ↔ 친중 노선). 이 점에서 ‘두 경향’은 우리 외교사에 면면히 흐르는 큰 특징을 명쾌하게 잡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최영의 요동공벌 논리와 이성계의 회군 논리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sup>4)</sup>

4) 한 연구자에 따르면,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강대국 동맹노선’을 취했다.

### III. 위화도 회군의 경과와 논쟁

그러면 위화도회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 우선 위화도회군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책인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비롯해,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용비어천가』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야사(野史)책인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등에도 위화도회군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다.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또 조선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사건인 만큼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sup>5)</sup> 그 중 현존하는 사료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또 자세한 것은 『태조실록』이다.<sup>6)</sup> 『태조실록』의 총서 ‘우왕 14년 5월’ 부분 중 해당 기사를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기로 한다.

대군(大軍)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威化島)에 머물렀다.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않았다. 우왕이 소재(所在)에서 목 베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左右軍都統使)가 상언(上言)하였다.

“신(臣) 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뗏목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洲中)에 머

---

어느 나라를 ‘강대국’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국제정치상황이나 국내정치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자주성과 재량권을 높이려는 ‘강성대국노선’이 나타났음도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었다. 본고에서 살피는 최영과 우왕에 의해 추진된 요동공벌론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5세기 고구려-북위 관계부터 17세기 조선-청의 관계까지를 통시적으로 개괄한 이익주 교수에 따르면, ‘조공책봉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조공국의 자주성이 강화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이익주 2009, 35).

- 5) 조선 후기의 숙종 때도 ‘위화도 회군’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송시열은 태조 이성계의 업적 중에 위화도 회군만이 그 중요성 — 명나라에 대한 사대(事大)와 조선건국의 기틀 닦음 — 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받았다면서, ‘소의정륜(昭義正倫)’이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세채는 반대했는데, 그에 따르면, 위화도회군은 왕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올리는 시호를 추가로 올리는 것은 불가하며, 결정적으로 1388년 당시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로서 왕명을 거역해서 회군했다는 ‘반역’ 혐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종은 논란 끝에 송시열의 제안을 받아들여 태조 시호를 올렸다. 『숙종실록』 9년 3월 25일, 9년 4월 1일, 9년 4월 19일; 『연려실기술』 제34권 숙종조 고사본말. 이에 관한 연구는 윤정의 논문(2006) 참조.
- 6) 『태조실록』은 1413년[태종 13] 완성되었고, 1442년[세종 24]에 개수되었다.

물러 둔치고 있으니 한갓 군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요동성(遼東城)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는 큰 내가 많이 있으니 잘 건너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근일에 불편한 일의 실상[事狀]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아뢰었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황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당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不忠)이니, 어찌 감히 죽음[鈇鉞]을 피하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국가가 삼국(三國)을 통일한 이후로 큰 나라 섬기기를 근실히 하여, 현릉(玄陵: 공민왕)께서 홍무(洪武) 2년에 명(明)나라에 복종하여 섬겨 그 올린 표문(表文)에, ‘자손만세(子孫萬世)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였습니다. […] 지금 유 지휘(劉指揮)가 군사를 거느리고 철령위(鐵嶺衛)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밀직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시켜서 표문(表文)을 받들어 품치를 계획했으니, 대책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 갑자기 큰 나라를 범하게 되니,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복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야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를 몰아 견고한 성(城) 아래로 간다면 싸워도 승리함을 기필할 수 없으며 공격하여도 빼앗음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당하여 군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군사를 돌이키도록 명하시어 나라 사람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여기서 이성계와 조민수는 위화도에 이르러 큰 냇물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1여울에서 수백 명이 빠졌다는 말이 그것이다. 또한 제2여울이 있고, 요동성까지 큰 내가 많아서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도망가는 군사가 많다는 그 앞의 사관의 기록 역시 이번 군사 동원의 난점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전(歷戰)의 명장 이성계가 이 정도 여울과 도망병 때문에 전진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이다. “큰일을 당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不忠)”이라면서 ‘근일에 아뢰된 일’을 언급했다. 그 일은 출병하기 한 달 전인 4월에 이성계가 ‘군대 출병의 네 가지 옳지 못한 점’을 우왕에게 아뢰었던 것을 말한다. 즉 우왕이 해주와 봉주 등지로 왕의 머무는 곳을 전진 배치하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자, 이성계의 ‘4불가론’ 즉 “①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以小逆大]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요, ②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夏月發兵]이 두 가지 옳지 못함이요, ③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왜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學國遠征 倭乘其虛]이니 세 가지 옳지 못함이요, ④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弓弩]은 아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疫病)을 앓을 것[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이니 네 가지 옳지 못함”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성계는 ①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역하면 국가안보의 도[保國之道]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공민왕 때부터 신흥 패권국인 명나라를 섬겨 국가안보를 지켜왔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②의 여름철 군사동원의 문제점은 그 앞의 큰 물을 만난 것으로, 그리고 술한 도망병으로 인해 증명된 셈이다. ③의 왜구침입 우려는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있으나, 『고려사』를 보면 이 시기에 이미 왜구는 전라도 진포<sup>7)</sup>와 양광도(경기 남부, 충청, 강원도 일부)<sup>8)</sup> 등지를 약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군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본 듯하다. ④의 장마철 무기 보관 난점과 역병 중에서 후자(역병)의 발발 얘기는 없으나 무기 보관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어려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성계에 따르면, 요동공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이긴다 하더라도 유지가 불가능한 일이었다.<sup>9)</sup>

하지만 이성계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환관(내시) 김완을 보내 군사들의 전진을 독촉할 따름이었다. 이성계 등은 환관을 억류한 채 다시 최영에게 보내 회군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중에 군중(軍中)에서는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동북면을 향하는데 벌써 말에 올랐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조민수가 그 소문을 확인하기 찾아왔다. 만약 이성계가 개경이 아닌 동북면으로 말머리를 돌렸다면 그것은 위화도회군은 그야말로 ‘반란’수준으로 격하되고, 이성계는 특정 지역의 맹주에 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계는 그러한 소문을 일축한 뒤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天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宗社)·생민(生民)의 재앙과 화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順理)와 역리(逆理)로써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또한 늙어 정신이 혼몽

7) 『고려사』 우왕 14년 5월 1일.

8) 『고려사』 우왕 14년 5월 13일.

9) 김영수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이성계는 군량 문제로 인해 요동성을 공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뒤 보급이 끊기면 공요군(攻遼軍) 전체가 괴멸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김영수 2006, 559).

하여 듣지 아니한다. 이에 어찌 경(卿) 등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禍)되고 복(福)되는 일을 진술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 임금 측근의 악인(惡人)을 제거하여 생명(生靈)을 편안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려사』 우왕 14년 5월 22일)

여기서 이성계는 다시 상국인 명나라를 범하면 나라에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요한 고비마다 사대(事大)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군사를 돌이켜 왕에게 ‘측근의 악인’, 즉 최영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찬성하였고, 마침내 이성계 등은 군사를 돌이켜[回軍] 압록강을 건너 개경을 향했다.

이때부터 실록의 사관(史官)은 여러 가지 이적과 이성계의 언행을 통해 위화도회군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즉 이성계가 압록강 저편, 즉 위화도 쪽에 서서 군사들이 다 건너가기를 기다린 후에 맨 나중에 건너니 갑자기 큰물이 이르러 온 섬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 안주에 머물던 우왕 일행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을 급히 추격해 왕을 사로잡자는 장수들에게 이성계가 “속히 행진하면 싸우게 되므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된다”면서 반대한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성계가 군사들에게 임금, 즉 우왕의 수레를 범한 자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경계를 거듭 말하고, “백성의 오이 한 개라도 빼앗아도 처벌하겠다”고 말한 것은 다분히 그의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고려사』 우왕 14년 5월 25일). 즉 군주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사랑의 덕목을 통해 “서경(西京, 평양)에서 서울(개경)에 이르는 수백 리 사이에 우왕을 쫓던 신료와 백성들이” 다 이성계의 지지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태조실록』 충서).

6월 1일에 이성계는 마침내 개경에 도착했다. 압록강을 출발해 약 6일 간의 행군을 하여 개경에 도착한 것이다. 고려 정부에서도 이성계 군대가 회군한 24일에 그 소식을 듣고 대책 마련에 부산했다. 우왕은 평양에서 요동정벌 때 군사들에게 상금으로 주려고 했던 값나가는 물건을 거두어 들였고(26일), 개경에서 모군을 하였는데 50여 명이 자원했다(28일). 최영 역시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이성계는 개경의 송인문 밖 산대암에 진을 쳤다. 그리고 억류 중이던 환관 김완을 보내 회군의 정당성과 최영 제거를 주장하는 글을 보냈다.

“현릉(공민왕)께서 지성으로 명나라를 섬기는 동안에는 천자가 무력으로 우리를 억누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지금 최영이 총재(冢宰, 수상)가 되자 조종(祖

宗)이래로 큰 나라를 섬겨오던 뜻을 망각한 채 먼저 대군을 일으켜 상국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한 여름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니 온 나라의 농사가 결판나고 왜놈들은 수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내륙 깊이까지 침입해 약탈을 저지르며 우리 백성들을 살육하고 우리 창고를 불살랐습니다. 게다가 한양 천도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소란한 지금, 최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필시 나라가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고려사』 우왕 14년 6월 1일).

여기서 이성계는 거듭 명나라에 사대하는 전통이 최영에 의해 끊겼으며, 그 결과 농사를 망치고 왜구의 침입을 받는 등 곤경에 처했음을 지적했다. 거기다 그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한양 천도 문제를 거론했다. 즉 우왕이 요동공략의 일환으로 한양에 성을 쌓고 세자와 왕비와 귀족들을 거처하게 했는데(『고려사』 우왕 14년 4월),<sup>10)</sup> 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내외 정치의 혼란으로 온 나라를 소란케 하는 최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전복될 것이라는 결론이 덧붙여져 있다. 그러자 우왕 역시 진평중을 보내 장수들을 회유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본격적인 정치 심리전이 시작된 것이다.

명령에 따라 출정했으면서 진군하라는 지시를 위한한 데다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침범하려 하니 이는 인륜을 어기는 짓이다.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부족한 이 몸 때문이긴 하나, 군신간의 대의는 진실로 역사에 있어서 보편적인 원칙이니 글 읽기를 즐겨하는 경들이 이 사실을 모르 리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강토를 어찌 쉽사리 남에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대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여러 사람들과 논의했으며, 그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감히 어기는가. 그대들이 최영을 지목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최영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경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한 것도 경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이 교서를 받아보는 즉시 쓸데없는 망상을 버리고 개과천선하여 끝까지 함께 부귀를 보존할 것을 생각하라.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고려사』 우왕 14년 6월 2일).

여기서 우왕은 네 가지를 들어 회군의 부당성을 말했다. 첫째, 왕명에 따라 출정한 장군이 지시를 어기고 도리어 대궐을 침범한 죄와, 둘째,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즉 철령 이북을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 없다는 점, 셋째, 그로 인해 신하들과 의논했고 모두가 찬성했다는

10) 이하에서는 인용한 기사의 분량이 많을 경우, 번역 출간된 책의 서지사항을 덧붙여 독자들의 편의를 도우려고 한다. 예)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번역, 『국역 고려사』 12권 66쪽 ⇒ ‘동아대 번역본 12권 66쪽’.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성, 넷째, 최영의 국가적 공로가 그것이다. 이성계 등의 약점을 정확히 지적한 이 글은 그러나 일반 백성이나 군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글 읽은’ 문사와 ‘부귀를 보존’할 귀족들에게 호소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정부진영과 회군파 진영 사이에 정치선전전이 오가는 중에 이성계 진영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동북면 지역의 백성들과 여진족 1000여 명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6월 2일). 정부 진영 역시 궁궐 창고의 금과 비단을 내어 군사를 수 천여 명을 모았는데,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죄다 창고 노예와 시정잡배”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회군 진영에서의 이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민수 등의 관작을 삭탈하고, 최영을 문하좌시중으로, 우현보를 우시중으로 임명하는 등 진영을 개편했다(6월 2일).

최영이 지휘하는 정부군은 그저 무력하게 패하진 않았다. 그 다음날 회군 진영에서 유만수가 이끄는 군대가 송인문 안으로 들어 맞서 싸웠으나 최영에게 패했고, 조민수 역시 영의서 다리까지 갔으나 최영 군사에게 패배해 도망쳤다(6월 3일). 아직까지 왜구를 두려워 떨게 한 ‘최만호(최영)의 카리스마’가 남아있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곧바로 이성계가 황룡대기를 앞세우고 선죽교 앞을 거쳐 남산에 올라가 본격적인 싸움이 전개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정부 진영의 안소가 정예군을 이끌고 남산을 점거하고 있다가 이성계의 깃발을 보고 무너지고 말았다. 이성계의 명성 또한 최영 못지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정예군이 무너지자 최영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화원(花園)으로도망쳐 달아났고, 이성계는 암방사 북쪽 고개로 올라가서 대라(大螺)를 불게 하자 회군 진영의 군사들이 화원을 겹겹이 포위했다. 최영은 팔각전에 우왕 및 영비(최영의 딸로 우왕의 비)와 함께 있다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회군 진영의 광충보 등에게 체포되었다. 최영은 울고 있는 우왕의 손을 놓고 두 번 절하고 밖으로 따라 나갔다. 밖으로 나온 최영에게 이성계는 “이번 사태는 내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정벌이 대의에 거역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불안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성계는 마주보고 울면서 최영을 고봉현(지금의 경기도 고양시)로 유배보냈다(『고려사』 우왕 14년 6월 3일).

이상이 정사(正史)에 나와 있는 위화도회군의 시작과 끝이다. 최영이 우왕을 설득하여 무리하게 요동정벌을 추구하다 하늘과 백성으로부터 버림 받고 마침내 실권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은 다분히 편집자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

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고려왕조실록』— 조선 초기까지 존재하고 있어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편찬의 일차자료가 되었던 — 에서 편집되었을 것이고, 태종 중반에 『태조실록』을 편찬하면서 재수정되었을 것이며, 세종시대에 들어 『고려사』 등을 개수하고, 나아가 세종 24년(1438년)에 『태조실록』이 최종 정리된 과정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고려사』와 『태조실록』의 위화도회군 관련 기사 역시 짜맞춘 듯이 그 내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우왕과 최영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위화도회군을 읽어갈 필요가 있다. 회군 이후의 과정에서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 IV. 회군 이후, 반대파의 제거 또는 설득과정

##### 1. 우왕과 최영 등 ‘수구파’를 처리하다.

우왕과 최영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고려사』를 읽을 때,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우왕12년(1386년) 7월의 첫 번째 기사이다. 정몽주가 명나라에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명나라 황제의 교지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너의 고려인들은 한나라와 당나라 때부터 중국에 와서 교역하면서 정탐했으며 우수한 장인들을 매수해갔다. 최근 들어서는 밀무역까지 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상인들이 탐라(제주)에 가서 말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관여치 말라는 매우 도발적인 글이었다. 더욱더 난감한 것은, 이 때 함께 보내온 명나라 예부의 공문이다. ‘황제의 교지’라고 칭한 예부의 외교문서는 한마디로 고려와의 외교단절 통보였다.

[...] 과거 공민왕이 재위할 당시 공물을 바치는 사신이 왔기에 그 때 나는 탄복하였다. [...] 그러나 공민왕이 옛날 자기 조상이 군주를 시해했던 그 응보를 받아 시해될 줄 어찌 알았으랴. 공민왕을 시해한 자는 그 응보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역모를 은폐하려 내가 보낸 사신을 살해했다. 그 뒤 여러 차례 조공을 하겠다고 요청해왔지만 내가 매번 허락하지 않은 것은 대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도 요청을 계속하기에 내가 억지로 좇아 세공(歲貢)을 요구했다. 그것은 삼한의 성의를 알기 위해서였는데도, 그들은 명령을 받고 한두 해도 안 되어 약속을 어겼다. [...] 내가 세공의 양을 정해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다. 삼한이 성실한지 거짓된 것인지를 알고자 함일 뿐이었는데, 이제 성실과 거짓이 확연히 드러났다. [...] 세공을 없애고 3년에 한 번 조회하면

서 우수한 말 50필을 바쳐 종산의 남쪽에 있는 목장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며…(『고려사』 우왕 12년 7월).<sup>11)</sup>

여기서 명나라 예부는 공민왕 시해사건을 꾸짖고, 명나라 사신, 즉 채빈의 살해사건을 문책하고 있다. 당시 채빈이 임밀과 함께 고려에 와서 난폭한 행동을 했으며 돌아가는 길에 호송관 김의에게 모욕을 주자, 김의가 개주참(지금의 봉황성)에서 채빈을 죽이고, 임밀을 인질로 삼아 원나라 장수 나하추에게 달아났다. 물론 이 사건은 김의의 개인적인 반감이라기보다는 친원파인 이인임 등의 목인 하에 진행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고, 그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 조정에서는 명나라 예부의 공문서 내용, 즉 ‘채빈 살해사건’ 추궁 및 우수한 말 50필, 그리고 탐라의 말 매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세공을 덜어준 것에 사례하고 명나라의 의관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사신(찬성사 윤진, 밀직부사 이희번)을 보냈다. 명나라에서는 비중이 낮은 인물이 왔다면서 고려 사신들을 무시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귀국하는 안익과 유희에게 ‘주단과 면포를 주고 말 5천 필을 사겠다’는 제의를 일방적으로 해왔다. 그러자 고려에서는 다시 설장수를 파견해 ‘우리나라에서는 매매할 말이 없다’는 문서를 보냈다. 이에 명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멸적인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그대 고려는 잘못 처리한 일이 있다.〔…〕그대들은 생각지도 않게 내가 보낸 환관을 살해하고 이어서 그대들의 국왕마저 시해해버렸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들을 중국에 오지 못하도록 했으며 삼강오륜을 저버렸다고 책망했던 것이다. 그대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라. 근래 몇 년 동안 그대들은 도리어 신하로 중국에 귀속되기를 요구하며 계속 와서 치근거리니 그대들의 얕은 피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대들은 우리 군대가 다른 지역을 모두 평정한 뒤 그대들의 나라도 정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착각하고 있다.〔…〕지금 저 운남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정벌하려 하지 않았으나 도리어 그들이 자주 우리의 변방을 침범하여 도리 없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정벌하였는데, 22만의 군마와 27만의 군인을 동원하여 정벌에 나섰다(『고려사』 우왕 14년 5월).<sup>12)</sup>

한마디로 명나라 조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운남처럼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정벌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배를 타고 온 군인들이 상륙

11) 동아대 번역본 12권 14-15쪽.

12) 동아대 번역본 12권 30-35쪽.

해 개경을 습격하려고 벌써 성문에 이르렀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도성 민심이 흉흉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네 차례로 나누어 명나라에서 요구하는 말을 3천 마리 요동으로 운송했다(우왕 13년 5월). 명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백관의 복식을 새로 정하기도 했다(우왕 13년 6월). 하지만 우왕과 환관, 그리고 측근 신하들은 명나라 복식을 거절하고 여전히 호복(胡服), 즉 원나라 복식을 착용했다. “명나라의 의관을 입고 성심껏 명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우왕은 호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대로(大路)를 달리기도 했다(『고려사』 우왕 14년 6월, 9월).<sup>13)</sup>

이처럼 고려 조정의 언행이 불일치하자 명나라에서는 고려의 사신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왕래의 재개를 위해 요동까지 온 정몽주 일행을 거절하여 돌려보내기도 했다(『고려사』 우왕 14년 1월).<sup>14)</sup> 명나라는 요동지역 폐쇄조치에 이어서 철령 이북 지역의 요동 귀속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우왕 14년 2월). “철령(鐵嶺)<sup>15)</sup>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開元路)에서 관할하던 군민(軍民)이 소속해 있던 곳이니, 중국인·여진인·달달인(達達人)·고려인을 그대로 요동에 소속시켜야 된다”는 내용의 외교문서가 그것이다. ‘고려시대관 동북공정’과도 같은 명나라의 이런 요구에 대해 온 나라가 분개해했다. 최영이 백관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모두가 ‘명나라 요구 거절’을 말한 것은 그런 분위기를 말해준다.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 우왕과 최영은 요동 공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때 이자송이란 사람이 최영의 사제(私第)에 가서 요동공벌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최영은 그 말을 들은 후 다른 이유(‘편당’)를 들어 그를 유배 보냈다가 죽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서북면의 도안무사로부터 요동지역의 군사들이 강계 지역에 이르러 철령위를 세우려 한다는 보고가 이르렀다. 그러자 우왕은 울면서 “여러 신하들이 나의 요동 공격 계획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 이후 이성계의 ‘4불가론’에도 불구하고 최영과 우왕이 밀어붙여 요동정벌이 추진되었고, 5월에 이성계 등이 위화도에서 회군한 일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요약하건대 우왕과 최영의 입장에서 볼 때, 명나라는 무례한 언사로 고려를 멸시했으며 말 매매와 영토 할양 등 과도한 요구로 고려를 시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조정에서는,

13) 동아대 번역본 12권 38, 45쪽.

14) 동아대 번역본 12권 53쪽.

15)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면과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사이에 있는 685m 높이의 고개. 고개의 북쪽을 관북지방, 동쪽을 관동지방이라고 한다. 명의 철령위 설치의 배경과 전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박원호의 논문(2007)을 참조할 것.

우왕이 6월 2일에 내린 글에서 보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으면 국가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즉 명나라의 경멸적인 외교적 언사와 무례는 그렇다 쳐도,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강토” 즉 철령 이북 지역을 강탈당하는 데도 저항하지 않는 것은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지지했다는 판단이 그것이다(『고려사』우왕 14년 6월 2일).

게다가 비록 원나라(북원)가 공민왕 17년(1386년) 이후 상도(上都,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다룬 부근)로 피난했고 계속해서 명나라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과거의 저력에 비춰볼 때 언제 어떻게 중원대륙의 정세가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1449년(세종31)에 명나라 영종 황제가 몽골족의 에센과 싸우던 도중에 포로로 사로잡히기도 했으며, 에센에 의해 북경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인들에게 개방적인 세계제국 원나라가 가졌던 관대함과 포용력에 비춰볼 때 흥건적 출신 주원장이 세운 나라는 매우 폐쇄적이었고 문명적으로 후진적인 나라로 보였고, 그들에게 사대(事大)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명나라가 다른 지역과 싸우는 동안에 요동 지역을 차지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계산 하에 요동정벌이 추진된 게 아닌가 한다. 다분히 ‘강성대국노선’을 걸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우왕과 최영의 신념과 계산에서 비롯된 요동정벌은 고려군이 요동 지역에 당도하기도 전에 회군해버림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리고 최영은 경기도 고봉현으로, 우왕은 강원도 강릉으로 내쳐졌다. 최영은 조선건국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라는 체제 안에서는 ‘협력자’였고, 왜구와 흥건적과 같은 외침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아군’이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 즉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패권이 전환되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 정치가로 간주되었고, 결정적으로 우왕의 외척으로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비춰졌다. 최영이 첫 번째의 제거 대상이 된 것은 이 점에서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최영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적절한 인물”로서, “그 가치들이 대립될 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이 빈곤”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높다(김영수 1999, 38). 한마디로 시대의 전환기에 조선 건국세력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 2. ‘개선파’ 이색과 ‘개혁파’ 정몽주를 제거하다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 등에 의해 제거된 두 번째 인물은 이색(李穡 1328~1396)이다. 우왕과 최영이 제거된 직후 회군과 내에 새 왕의 추대를 놓고 분열했는데, 조민수파는 우왕의 아들 창왕을, 이성계파는 ‘왕족 중의 한 사람’, 즉 나중에 공양왕이 된 정창군 — 그는 이성계의 사돈인 왕우의 친형이었다 — 을 세우려 했다. 이 때 이색은 “마땅히 전왕(前王)의 아들(창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서, 조민수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려사열전』 50, 창왕 즉위년 6월). 이것은 곧 그가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개혁’하거나 전면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내지 약간의 변화를 통해 ‘개선’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색은 사실 공민왕의 개혁으로 빛을 본 인물이다.

1366년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해 추진한 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가 성균관을 중영한 일인데, 바로 그 성균관을 이끈 인물이 이색이기 때문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공민왕 16년(1367) 성균관을 다시 지은 다음 이색이 성균관 겸대사성이 되었는데, 전에는 수십 명이었던 학생들이 대폭 늘었다. “이색이 학식을 다시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논란(論難)하기를 부지런히” 하였는데, 이 때문에 “학자들이 모여들어 서로 관감(觀感)하였으니, 정주(程朱)의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였다”고 한다(『고려사』 열전 28 이색).<sup>16)</sup>

위화도회군 이후 이색은 창왕을 옹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는 결국 ‘윤이·이초의 사건’(1390년)을 계기로 이승인 등과 함께 실각했다. 그는 이성계 일파가 세력을 잡자 오사충(吳思忠)의 상소로 장단(長湍)에 유배, 이듬해 함창(咸昌)으로 이배되었다가, 청주 등지로 안치되었다. 1391년에 석방되어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해졌으나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이에 관련해 금주(衿州)로 추방되었다.<sup>17)</sup>

고려말 최고의 국가석학으로 성균관 대사성, 즉 국립대학의 총장으로서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의 스승이기도 한 이색은 고려 사회를 ‘개선’해보고자 했으나, 개혁이나 혁명적 변화에는 반대했다. 최영과 마찬가지로 그는 조선건국 세력에게, 현상을 유지하고자 한 기득세력으로 간주되었던 듯하다. 이색은 장단 유배 이후 목숨은 부지했으나 정치적으로는

16) 동아대판, 26권 21쪽.

17) 조선 건국 후 한산백(韓山伯)에 봉해지기도 했으며, 태조 이성계로부터 벼슬길에 나올 것을 요청받기도 했으나 끝내 고사하고, 태조 5년에 여강(驪江)으로 가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색은 창왕, 조민수 등과 함께 제거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성계와 같이 회군을 이끈 조민수가 조선건국세력이 되지 못하고 이 단계에서 좌초된 점이다. 조민수는 회군 직후 창왕을 옹립한 다음, 창왕의 인척이기도 한 이인임의 복권을 추진했다. 그는 직전에 사망한 이인임을 후하게 장례지내고, 국가에서 치제(致祭)할 뿐더러 추증(追贈)해야 한다고 창왕에게 제안했다(『고려사열전』 열전 39, 이인임).

조민수 등은 그 이전 시대의 혼란을 모두 최영에게 돌렸다. 1388년 6월에 내린 정비(定妃, 공민왕의 후비)의 교서는 ‘우왕이 공민왕의 유지를 받들어 잘 다스리려했는데, 최영이 사냥으로 유도하고 형륙으로 이끌게 했다’고 최영을 비난하고 있다(『고려사』 열전 50, 창왕 즉위년 6월 신해). 최영을 비난하고, 우왕의 파행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인임을 복권시키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민수 등이 추진하는 노선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이성계는 동북면 사방 강릉도 도통사라는 최소한의 군통수권만을 인정받았는데, 한때 ‘칭병사직’(稱病辭職)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곧 조민수를 제거하는 등 과감한 ‘돌파’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구세력의 특권을 유지시키면서 기득세력으로 포섭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개혁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요약하건대 조민수의 퇴출은, 그가 이성계와 군사행동은 같이 했으며 비전이 달랐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조선건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제거된 인물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였다. 정몽주는 공민왕 9년이 되는 1360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인물로 이색과 더불어 고려말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그는 한 때 이성계와 함께 여진족 토벌(1363년) 및 왜구 토벌(1380년 운봉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외교임무를 띠고 중국에 가서 돌아오던 중 풍랑으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으며, 위협을 무릅쓰고 일본에 건너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왜구에게 잡혀갔던 고려 백성 수백 명을 귀국시킨 외교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한때 이성계 등과 함께 고려 말의 정치 사회적 폐단을 개탄하고 성리학 이념에 입각해 바뀌라고자 꿈을 꾸었던 개혁 세력이었다.

정몽주는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의 위망(威望)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조준·남은·정도전 등이 왕으로 그를 추대하려 하고 있음을 감지하였고, 이들을 사전에 전격적으로 제거해 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나갔던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벽란도(碧瀾渡)에 드러눕는 일이 발생했다. 그야말로 무인 이성계로 볼 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꼴’인데, 당시 무당 방울의 표현대로 “백 척의 난간에 오르다가 실족하여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몽주 등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언관으로 하여금 이성계와 친근한 조준·정도전·남은·윤소중·남재·조박 등을 탄핵하게 했다. “이성계가 공(功)을 믿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한데, 마땅히 그 보좌역인 조준부터 제거하고 이성계까지 없애야 한다”는 탄핵이 그것이다(『태조실록』 충서). 정몽주는 나아가 정도전을 국문하여 ‘이성계가 왕이 되려한다’는 말을 자백 받으려 하였다. 아예 역모의 죄로 다스리려 한 것이다. “사세(事勢)가 이처럼 급박하고 화(禍)가 어찌 될 지 알 수 없게” 되자 이성계는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다만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하여 거의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무인 이성계 특유의 단순함과 수동성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이 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휘하 세력을 모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씨(李氏)가 왕실에 공로가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고 있으니, 만약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손을 묶인 채 살육을 당한다면, 저 소인배들은 반드시 이씨에게 나쁜 평판을 뒤집어씌울 것입니다. 훗날 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태조실록』 충서).

한마디로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되는 것인 만큼 현실의 권력쟁탈에서 승리하여 ‘스스로 변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었다. 이후 이방원이 이성계를 병문안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죽교(善竹橋)에서 격살하여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18)</sup> 정몽주는 고려 말의 한계를 개혁해보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계, 정도전 등과 같이 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는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위화도 회군 이후 조선건국까지의 4년간의 격변 동안 크게 세 부류의 인물들, 즉 현상유지를 고집하며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최영 등의 수구파, 현상유지 보다는 조금 나아가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변화를 인정하는 이색 등의 개선파,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가와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되 국왕을 교체하고 나라를 바꾸는 등의 혁명적 변화까지는 원하지 않은 정몽주 등의 개혁파 등이 차례로 제거되었다. 이는 중대한 역사 전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전환기 리더가 만나게 되

18) 조영규 등이 정몽주를 격살한 후 이방원은 군사들을 동원하게 하는 한편 이방과(나중의 정종)를 궁궐에 보내 왕으로 하여금 대간을 국문하도록 강요했다. 대간 김진양의 입에서 “정몽주·이색·우현보가 이승인 등을 보내 조준을 제거한 후 이성계를 없애야 한다”고 했음을 자백 받은 그는 반 이성계 세력을 제거한 후, 망설이는 이성계를 중용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태조실록』 충서).

는 인물들이라고 하겠다.

## V.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화도 회군은 단순히 우왕과 최영의 무모한 대외정벌이 이성계 등에 의해 좌절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두 가지 외교노선, 즉 강성대국노선과 강대국동맹노선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이성계 등 조선건국세력이 중원대륙에서 명나라의 발흥 등 국제정세의 변동과 민심의 변화 등 이른바 ‘리더십 모멘트’에서 발휘한 전환의 리더십이었다. 옛날의 가치와 질서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리더십 모멘트에서 이성계 등은 위화도에서 일단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는 방향전환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사이에, 즉 1388년에서 1392년까지 기간 동안 중요한 고비마다 포기하지 않고 과감히 추진해 나갔다. 회군 직후 자신의 세력기반인 동북면으로 가지 않고 곧장 개경으로 향한 것이 첫 번째 돌파 지점이었다면, 조정 신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개혁을 추진한 것은 두 번째 돌파 지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정도전과 조준 등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가며 ‘돌파’ 또는 ‘전환’을 결정했다.<sup>19)</sup>

그러면 그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나? 압록강에서 회군할 때 이성계가 내세운 논리와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요소, ‘세(勢)’의 요소이다. 당시의 가장 중요한 환경은 국제정세인데, 당시 명나라는 아직 동아시아의 패권국은 아니었지만, 조만간 강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북쪽의 몽골족은 곧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성계와 이색, 정몽주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영의 요동정벌론이 객관적 국제정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것이 설득력을 가진 것이다.

둘째, 시점이다. ‘운(運)’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천하의 일에는 처한 바의 형세[勢]가 제일 중요하고 행운[運]의 여부가 그 다음이며, 옳고 그름은 제일 아래다”<sup>20)</sup>라는 말이 있듯

19) 위화도회군 직후 이성계는 정도전을 성균관대사성으로, 조준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추천하여 자신의 우익(羽翼)으로 삼았다. 그 외 전법판서 조인옥, 우사외대부 윤소종 역시 이 시기에 증용된 이성계의 인물들이었다(이익주 2006, 82).

20) 이익, 『성호사설』 ‘經史門.’

이, 리더십 모멘트에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에 군대를 일으킨 것 등에서 보듯이, 최영은 시점을 잘못 잡았고, 그것은 반대파인 이성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셋째는 사람이다. 이른바 천지인 중에서 인(人)의 요소가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이성계는 사대(事大)의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실록을 보면 그는 ‘말이 별로 없지만 상대방 말을 잘 듣고 호응을 해주어서, 인재들이 그의 앞에 가면 신명나게 자기 마음 속을 털어놓곤 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그의 주위에는 인재들이 많이 모였고, 위화도 회군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정도전, 조준 등 술한 인재들이 이성계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조선 건국까지 가게 되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어리석은 국왕과 노쇠한 최영”이 이끄는 고려 조정 사람들을 믿고 무모한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객관적 정세(勢)와 시기(時)와 사람[人] 모두가 부적절한 가운데 큰일을 벌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성계가 한꺼번에 그의 정적들을 제거한 게 아니라, 최영, 이색, 정몽주의 순으로 차례차례 반대파를 제거해 나간 점이다. 정적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여 분리하여 제거하는 것, 바로 그 점도 성공 요소의 하나였다.

글을 맺으면서, 이성계의 판단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본다. 글의 서두에서 썼듯이, 최영의 요동공벌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동아시아의 강성대국, 즉 ‘제2의 고구려’가 되었을지, 아니면 명나라에 패망하여 ‘제2의 한사군 설치’ 같은 비극이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이성계는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으며 그것이 조선왕조의 대외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자신의 선택을 변론했다. 비록 승자의 자기변론일지라도 기록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위화도회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투고일: 2012년 4월 12일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5월 29일

## 참고문헌

〈1차 문헌〉

『태조실록』

『용비어천가』  
『고려사』  
『속종실록』  
『연려실기술』  
『성호사설』

〈2차 문헌〉

강상운. 1959. “위화도 회군 이후의 정치외교사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1집.  
 강지언. 1993. “위화도 회군과 그 추진 세력에 대한 검토.” 『이화사학연구』 20-21집.  
 교육인적자원부. 2006. 『고등학교 국사』. 서울: 교학사.  
 김당택. 2005. “이성계의 위화도회군과 제도개혁.” 『역사학연구』 24집.  
 김영수. 1999. “위화도회군의 정치: 최영 이성계의 요동공벌 정책과 이색 이성계의 정치개혁 정  
 통성 논쟁.”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김영수. 2006. 『건국의 정치: 여말선초, 혁명과 문명전환』. 서울: 이학사.  
 박원호. 2005. “고려말 조선초 대명외교의 우여곡절.” 『한국사 시민강좌』 36집. 서울: 일조각.  
 \_\_\_\_\_. 2007. “철령위(鐵嶺衛) 설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한국사연구』 136집. 한국사연구회.  
 박천식. 1979. “무진회군공신의 책봉전말과 그 성격.” 『전북사학』 3집.  
 박홍규 외. 2007. 『정치가 정도전』. 서울: 까치.  
 윤정. 2006. “숙종대 태조 익호(諡號)의 추상과 정계의 인식: 조선 창업과 위화도회군(威化島回  
 軍)에 대한 재평가.” 『동방학지』 134집.  
 이상백. 1949[1984]. 『이조건국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이익주. 2009. “원간섭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 — 고려·몽  
 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27집.  
 \_\_\_\_\_. 2006. “고려 말 정도전의 정치세력 형성 과정 연구.” 『동방학지』 134집.  
 최승희. 2003. “개국 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한국사』 22권.  
 J.G.A. Pocock 저. 광차섭 역. 2011.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서울: 나남.  
 James B. Palais. 2003. “Korean Foreign Policy”(미간행논문). 미국동아시아학계 석학초청집중  
 강좌 자료집.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Michael Ussem 저. 안진환 역. 2006. 『고 포인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_\_\_\_\_. 양병찬 역. 2011. 『리더에게 결정은 운명이다』. 서울: 페이지로드.

ABSTRACT

---

## A Study of Yi Seong Gye's Leadership Moment during the Wehwado-hoegun in 1388

**Hyunmo Park**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Yi Seong Gye's leadership in the Wehwado-hoegun (troop withdrawal), 1388. The dissenter who opposed Yi Seong Gye's troop withdrawal said "Yi missed the chance that Koryo could recapture Goguryo's old territory." Yi, however, was the judge of that if troops advanced on Ming dynasty's territory across the Yalu river, Koryo would defeat and ended in 'Another Hansagun's rule'. So he turned his troops and went back Gaegyung (Goryo's capital) at Wehwado island. He won through obstructions on the road for about four years (1388. 6-1392. 7). At last, he founded the Chosun Dynasty and ascend the throne. History sometimes demands leader's sober decision.

**Keywords:** Yi Seong Gye, Wehwado-hoegun (troop withdrawal), leadership moment, turning point leadership, go point leadership